

GRACE 선교소식

2025년 8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18명 (자체파송 78%)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지난 주간 필리핀에서 GTD 1기 귀한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금요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GMI 은혜교회 금요성령집회를 인도하며, 모처럼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한 분 한 분 기도제목을 붙들고 안수기도를 하다 보니 거의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예배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뜨겁게 은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오래 함께한 듯한 감동과 여운이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당진 동일교회, 창원 양곡교회, 서울 도림교회, 필리핀 GTD 1기, GMI 은혜교회 집회까지,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사역을 돌아보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토요일 오후에 출발했는데, 미국 LA에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홍수·폭염·무더위를 겪다가 LA에 도착하니, 환상적으로 좋은 날씨가 반겨주었습니다.

주일 4부 예배까지 인도하며 새삼 “교회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고, 예배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예배를 드리고 축도 후 안수기도를 마친 뒤 제 자리로 돌아와 앉은 순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 4부까지 한여름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서울 원천교회 문강원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으며, 성도님들께서 기도제목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사모하며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집회를 통해 큰 은혜와 회복, 치유,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TD 209 남자: 8/24-8/27
- 목포사랑의 교회 부흥성회: 9/3-9/5
- 국제 총회: 9/9-9/12
- 여수 은파교회 부흥성회: 9/16-9/18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늘 은혜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 시간마다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

송좌한 / 김정희 선교사

저희는 작년 10월에 오사카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중에 올해 1월 동경에서 열린 선교대회 참여하여 만난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하게되어 치바에 정착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섬기는 치바벤엘교회는 정영철, 이복순 선교사님이 개척하셔서 30년째 된 한인교회이면서 일본동맹그리스도교단 소속으로 일본인 선교를 위해 부단히 애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일본인은 30프로 정도이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일본어

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새벽예배를 쉬지 않고 수요, 금요기도회가 뜨겁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를 제아내는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홀리스 사역과 한글학교 사역이 있고, 거의 매달 특별집회, 부흥회, 선교팀 방문 등으로 바쁜 상반기를 지냈습니다.

3월에 꿈에 그리던 월세집을 타인 명의로 얻게 되었고 신청한지 3주만에 3년짜리 비자가 나와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달 가까이 한국일정을 보내고 와서 더 놀랐던 것은 집 화장실 변기레버의 고장으로 물이 흘러서 엄청난 수도세가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과 집주인, 수도국 모두 원천만 이야기하며 아무 도움을 주려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되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 정착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지난한 일임을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일본사회에 잘 정착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스

신동덕 / 신미희 선교사

그리스에는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무슬림 난민들이 중동에서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이란, 파키스탄에서(여기에는 나라가 없는 쿠르드족도 포함) 남쪽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케냐, 소말리아 등지에서 일단 그리스 섬으로 밀항해서 난민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밀항은 떠나는 지역에 따라 한 사람당 \$1,500 에서 \$5,000 정도가 듭니다. 이들에게 이 돈은 엄청난 돈으로 여려해 동안 모으거나 친지나 동네주민들에게 빚을 져서 옵니다. 난민이 북유럽 좋은 나라에 정착하면 빚진자에게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이며 빌려준 자들에게는 자국 은행보다 신용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스 섬에 도착 후 여러 달 살다가 난민 망명신청증을 발급받으면 육지 난민수용소(그리스 전국적으로 28개 정도의 난민 수용소가 있음) 보내지게 됩니다. 육지 난민 수용소에서 인터뷰를 여러 달 기다리다가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인터뷰는 보통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이라도 인터뷰 날짜는 각각 다른 날짜에 받으며 가족끼리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경우 1차 심사에서 탈락받게 될 뿐 아니라 유럽 난민 기록에 남게 됩니다.

1차 심사에서 탈락될 경우 언제 2차 인터뷰 날짜가 잡힐지 알수가 없습니다. 모든 난민들은 인터뷰 날짜를 제대로 받기 위해 또한 인터뷰 심사 내용을 변호사에게 미리 코치받기 위해 없는 돈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가족 4명 중 2명만 망명신청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후 망명이 받아들여지면 망명증 ID와 Greek Passport를 받게 되며 이것으로 보통 북유럽으로 또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착한 북유럽에서 망명을 다시 신청하지만 요즘에는(북유럽의 어려운 경제와 정치로) 이미 그리스에서 망명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테네 인근에는 2시간 안에 차로 갈 수 있는 난민캠프가 5개나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이중 1-2군데 캠프의 난민들과 이미 난민증을 받고 아테네에서 정착하려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난민캠프에 온 난민들은 3-6개월이면 다른 북유럽으로 떠납니다. 이 기간 안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모든 난민은 거지나 다름없는 가진 것이라곤 옷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말짱한 차림과 '언젠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끼의 식사가 있어야 하며 연속적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생활에 도움 되는 쌀, 식용품 또는 Food Voucher, Sim Card 등이 제공되어야 복음 프로그램 또는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선교사가 무슬림에 들어가 비밀리에 여러 해 동안 복음을 전하여 1-2명의 제자를 얻는것에 비하면 큰 수확이긴 합니다.

Akbar 아프간 노인

저희가 하는 토요일 인카운터 프로그램과 주일예배에 꼭 1시간 전에 오는 아프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를 자기의 친동생 다루듯이 저를 오라며 알아 듣지 못하는 아프간 언어로 훈계합니다. 나름대로 풍채가 좋은 할아버지 Akbar. 1년 전부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와서 말씀을 듣고 식사후 떠나던 할아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도 많아지고 꽤나 괜찮은 젊은 청년들을 매주일 교회로 데리고 나옵니다. 교회측에서 보면 그는 난민 전도왕이었습니다. 한국 일회용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만 보면 협박 하듯이 외칩니다. '코레 커피'

두달 전부터 저희 교회가 미국의 어느 단체

로부터 50유로의 Food Voucher를 8장 제공받아 먼저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과 과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받지 못한 난민들도 자기네 사정 이야기를 하며 Food Voucher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후원받는 것은 8장뿐이며 가장 어려움이 있는 자녀 있는 가정과 과부들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해도 모두가 자신들이 가장 어렵다는 사정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프간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끊어졌습니다. 한주, 두주 뒤에는 안오는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교회집사로 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자신에게 아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더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은 많은 난민들을 대표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나온 것은 무슨 혜택을 바랬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라서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아도 괜찮으리라 생각했던 저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난민생활을 지탱하는데 있어 이들에게는 복음이나 예수보다도 육신의 양식 해결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이는 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어립니다. 앞으로 이런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기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난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찾아온 이들에게 조건없이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가져 봅니다.

저희 난민선교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동역과 후원, 기도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O 선교사

사랑방

목장 하리푸 가정을 중심으로 3대가 모인 사랑방, 모리(가명, 이전개척교회파송선교사) 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신우회사랑방, 자녀상담내담자로 구성된 하이자매 중심의 사랑방, 유기농 무화과농원사장 중심의 3대와 친척이 모인 신우회사랑방을 섬기며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고 나머지는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리사랑방은 매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25년 5월 셋째주부터 그들만 독자적으로 직접 만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3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정책 가운데 주님께서 분가 및 사랑장과 예비사랑장을 세워주셔서 안전하게 사랑방이 지속적으로 모이도록 기도하고 권면중입니다.



기독교상담·코칭·컨설팅 사역의 통합

- '책 출간 및 제자양육 공동체' 준비

지인(대부분이 내담자였던 새신자)들의 지속적인 소개로 가족상담과 진로코칭, 기업컨설팅을 통해 영접부터 가정예배와 MIP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그동안의 현지 스몰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책을 집필하는 중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케이스와 실제 적용이 풍부히 담긴 실용적 교재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나를 찾고, 은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성숙함으로 하나가 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간 이후에는 이를 교재로 삼아 민간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공식 단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기도하며 간사들을 물색 중입니다. 이 단체는 상담과 코칭의 전문 인재를 길러내는 동시에, 제자양육과 성경적 삶의 적용을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기도하며 준비중입니다.

주말학교 및 다음세대 진로상담

현지 농장주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유기농 무화과 농장에 기독교적 상징과 스토리를 더했습니다. 농장의 정기적인 행사에 전도지를 만들어 배부하기도 하고, 주말농장, 학생 탐방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 체험형 사역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말학교를 '청소년 성취 포상제'로 차별성을 주어 건전한 기독교 가치관을 지향하며 스스로 작은 목표와 선한 일들에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상담 및 부부상담으로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광야목장 지역개발 및 전도

내몽골 목자들은 양을 방목합니다. 2년을 자식처럼 키워 팔 때는 5~6개월 사료를 먹여 키운 양들과 말도 안되지만 무게로 같은 값을 받습니다. 이들을 대변하고 돕기 위해 영상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직접 배우고 가르치며 현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계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복음의 터전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내몽골 내 몽골 전통문화라지만 본질이 희미해진 번째와 제사장들 집단, 노마드 방목이 아직 남아있는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성경과 접목시켜 '광야생활 체험 단기선교자'로 셋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말하면 불법이지만, 그들의 민수기같은 문화유산과 노마드 삶을 다큐로 찍어 문화와 양을 홍보하고 판로를 열어주는 것은 소수민족문화계승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들이 C국 내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중입니다.

온라인 사역

에O '뉴베리상 문학소개', 에O이의 '중세 르네상스 명화소개', 장O 'C국미번역기독교가치관 도서소개'와 '큐티일기' 중국블로그를 통한 전도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노벨문학상인 뉴베리상 수상작품과 중세시대, 르네상스 배경의 명화를 그린 작가와 화가들은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작품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녹아있는 기독교 신앙적 메시지를 풀어내며, 독자들이 명작과 명화의 감상을 넘어 자연스럽게 복음의 세계로 초대됩니다. 장O 선교사도 'C국에 미번역된 책소개' 블로그를 통해, 기독교가



치관의 책을 소개하고, 김OO 선교사의 큐티 일기도 매일 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에O, 에O이가 대학입학기념으로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로 시작한 이 블로그들은 매일 1편씩 꾸준히 연재되어, 매일 천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블로그들이 꾸준히 온라인 문화사역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전도지처럼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강화된 기독교 용어 검열로 대체용어를 찾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지혜와 성실, 안전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소개와 댓글과 개인쪽지를 통해 결신으로 이어지길 함께 간구해 주십시오.

개인 쪽지를 통한 기독교 변증

타종교와의 비교종교를 통한 기독교 복음, 상대의 질문에 대한 변증을 통한 전도에 최근 재미가 붙었습니다. 여러 일정들로 시간관계상 모든 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답을 달고 저희 아이들과도 토론하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출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공부와 365성경통독, 온라인 상담 및 전도는 꾸준히 진행하려 노력중입니다만, 최근 엄격해진 검열로 한국에 홈커밍데이로 들어가면서 6월 셋째주부터 온라인 예배와 성경통독반, 성경공부반, 신우회의 변론반을 멈췄습니다.

온라인 사역 및 병음성경 배포

저희가 전도하는 사람들과 다음세대들, 한자를 못 읽는 소수민족들, 타국에 있는 중국인 화교들의 다음세대들에게 병음성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종이성경을 소장만 해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늘고 있어 보관, 유통과 배포는 부담이 무척 큼니다.

배송과 수취, 보관과 배포, 받아 읽는 자 모두에게 안전과 은혜를, 그리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I

이OO /이OO 선교사

안식일(샤밧) 저녁식사 유대인 초대 전도 구역은, 1년 7개월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의 안식일 저녁 식사(샤밧디너)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와 전도폭발 프로그램의 혼합된 구역과 유사합니다. 보통 밤 12am 넘어서 끝납니다. 요즘은 오는 게스트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 보다는 새로운 멤버들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대부분이 ex-orthodox 멤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초창기 멤버들 친구들이나, 거리에서 전도 중에 만난 사람들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멤버들은 이미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교회에 따라 나가는 형제, 자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청난 영적공격으로 인해 일상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를 느낍니다.

유대인과 함께 센터에서 2달전부터 예배를 시작하다.

두달 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센터에서 가정 교회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샤밧 저녁 모임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가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민족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교회는 샤밧디너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좀더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팀과 메시아닉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참석해서, 지금은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가정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되다.

1년 넘게 이어온 부항 테라피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이OO 선교사의 신분을 같은 봉사자들이 알기 시작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이OO 선교사는 I국 현지 유대인 테라피스트들과 함께 군부대에 찾아가 부항 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치료받은 군인 중에 6명 중 2명이 가자에서 하마스에 의해 죽게 되어 많이 슬퍼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뉴스에 의하면 유대인 군인들의 자살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전쟁이 끝나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얼마나 방향을 할 지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혼란의 영을 I국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평안과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많은 테라피스트들 중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영적 테라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를 통해 발전한 것들인데, 많은 부분이 뉴에이지와 같아서 잘못된 영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러운 영들에게서 보호막을 쳐서 어둠과 혼돈의 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최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쉴로미, 켈리, 티란, 바트엘, 지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약성경을 구입해 주기도 합니다. 이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며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켈리 자매는 예수님 영접 후, 너무 많은 영적공격에 시달리다 직장에서 해고 되면서, 저희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이 이 자매를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 앞으로 나오길 기도해주시요.

미션 센터에서 독립하다.

최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9월부터 센터에서 나와 따로 아파트를 구해 지내기로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EM의 장기, 단기

팀들과 1-3개월 또는 1년을 같이 센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중에 3-4명은 헌신하여 히브리대에 입학하여, 8월부터 새로운 I국 삶을 시작합니다. 또한 터키에서 훈련이 끝나는 팀의 4-5명이, 9월 중순부터 I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같이 했던 장기 선교사 2명은, I국에서 1년 동안 철수를 하여 당분간 다른 지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샤밧디너 멤버 중 유대인 일부 사람들이 J도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에도 서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통사고와 정통유대인의 회개

일주일 전에 이OO 선교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정교회 예배를 같이 드린 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랍비 아들인 유대인 형제를 집에 데려다 주고, 되돌아 오는 과정에서 정통 유대인 여자 운전자가 저희 차를 뒤에서 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운전면허도 자동차 보험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리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리비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메시지에 답장이 왔고, 그 다음날 만났을 때, 나의 메시지에 회개했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서로 눈물이 글썽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이OO 선교사도 아프기 시작해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영적공격을 압니다. 같이 예배드린 그 형제는 계속 자살을 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곤 했는데, 이번 예배를 통해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적공격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I국은 영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미국

김OO/ 양OO 선교사

이곳은 사막이라는게 실감이 나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 잠을 자기 힘들며 이곳 친구들과 여름을 잘 견뎌내기를 하루 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좋아져서 스케줄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아님 배탈인지 쉬면 낱을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약국에서 임신테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니 저희 가정에 귀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혼 4년차인데 결혼초반부터 너무 기다린 기도응답을 애굽에 온 지 6개월만에 이 땅에서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열방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과 계속되는 기도응답들 가운데 놀라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고 모두에게 걱정이 되지 않게 몸 잘 챙기며 지내겠습니다.

MATH & ENGLISH CLASS

무친구들 치료사역을 하며 또 하나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자매(35)는 이혼하고



두 딸들을 혼자 키우며 허리 협착증으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해주고 침을 놔주었습니다. 오래 앓고 있던 병이고 짧은 시간에 치유가 될 수 없기에 계속해서 그 가정과 관계를 쌓고 기도하며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딸들도 수학과 영어 과외에 합류하게 되어 더 풍성한 수업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INA GRACE PROJECT

현재 수단학교 보수작업은 느리지만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책상들이 배달되었습니다. 어린 꼬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밖에 복도에서 밥을 먹고 했는데, 쪼르르 책상에 모여 쉬는 시간을 가지는 모습이 참으로 귀엽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며 지혜 주시고 또 수단선생님들과 더 하나되게 하실 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부부의 가장 큰 기대 제목 대상은 수단 친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눈뜨면 그 친구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겉보기에 학교상황도 더 나아지는 거 같지만, 사실상 학교는 시작한 지 1년도 안되어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월급에 지쳐가고 한명씩 학교를 더 떠나는 상황이 와서 선생님들이 부족한 건 해결이 안되고 원장도 개인적인 삶의 고민들과 학교를 살리려는 애타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 한달 운영비는 \$700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수단난민들의 삶 때문에 크지 않는 학비도 제때 내지 못하고 그런 학생들을 내치지도 못하고 품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돈이 없어 집에 가면 며칠 밥을 못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저희 부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님만 붙들고 이 친구들에게도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7월 1일 저녁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며 하루에 두번씩 모스크 사원에서 울리는 기도소리가 나지만 전혀 저에게는 문제가 안됩니다. 이런 정신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와서 사람들과 알고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늘 느껴왔지만 이곳 사람들은 점잖고 품위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곳 사람들이 원하는 언어의 수준에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일 수도

있고 또 국민성이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폐쇄적인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들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언어공부를 하다 보니 문장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파악되고 실제 생활에서도 제가 공부한 구조가 조금씩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도 알아야 할 단어가 엄청나게 많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통역과 번역을 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조금씩 문장을 읽어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곳 보스니아에 있는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자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이 두 세명이 보통이고 대부분

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채우고 보스니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후원을 받고 교회가 유지되기에 목사님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목사님도 같은 경우였는데 후원을 해오던 분들이 연세가 들고 끊어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든 상태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리오 목사님께 후원을 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비자 갱신을 할 때 쯤 건물을 얻으려고 기도 중입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에 있는 현지 목사님과 복음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1분단상 143-8월호>

- 김대규 장로

많은 이들에게는 ‘좁은 문’하면 앙드레 지드의 소설을 연상케 한다. 주인공 알리사는 사랑을 포기하고 개인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으로 완전함을 추구코자 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좁은 문은 희생과 절제를 요구하는 상징적 경로로 그려진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를 쫓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 길은 쉽지 않다. 인내와 자기성찰이 쉼 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길이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다. 예루살렘이 있는 원래의 양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을 이끌고 들어가는 문이었던 것처럼 이 문은 주님의 희생과 구속의 문을 뜻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 중생한 이들에게는 이 양문은 곧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로 큰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하셨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너희가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다(마 7:13, 14).

더 나아가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리라”고 하셨다. 여기서 좁은 (헬:스테노스 stenosi)이란 협착하여 방해와 고난이 있음을 의미하고 힘들라는 노력하라(헬:아고니조마 agonizomai)로 ‘고뇌하다’에서 유래한 것을 볼 때 생명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주님은 “들어가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13:24)고 말씀한 것을 보면 아무나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왜 좁은 문이 어떠한가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생명의 문으로 이를 통해 펼쳐진 협착한 길로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길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님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았다면 그런 자는 “모른다”고 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이어야 한다.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죄와 분리되어 거룩하게 성화 되어 가는 자를 말한다.

역사 속에는 이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간 선진들이 많다. 그중 몇 분만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으며 모세는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고난 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방탕한 삶에서 회심하여 신학의 기초를 세웠고 마틴 루터는 가진 고역을 겪으며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였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자기부인, 사랑, 헌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택하고 협착한 고난의 좁은 길로 가기를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이 대열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한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우리는 세상가치에 둔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지속적으로 육신의 자아와 싸워 이겨야 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매일 주의 것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이 세상을 순례의 길로 기쁘게 달려가는 자이어야 한다(눅9:23).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 불이익이나 조롱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다.

그렇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이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자. 협착한 좁은 길 끝에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바라보자. 우리가 성취할 마침표를 말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성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좁은 문을 들어 선 자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대만 김성수 선교사

1. 7월에 입학할 19기(36명)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성령충만 하도록
2. 신학교를 통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3. 딸(현숙)의 대학생활과 사명을 깨닫도록



일본 송좌한 / 김정희 선교사

1. Jesus Life 부흥회로 은혜주심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나눔으로 성숙함을 이루도록
2. 청년부에 계속 신앙 좋은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오고 있는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3. 수도세가 500만원 넘게 나와 곤란한 상황입니다. 잘 헤쳐갈 지혜와 힘을 주시도록
4. 일본어학교 2학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의 기회를 얻도록
5. 청소년 영어 리더십 캠프(7/31-8/4)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해외참가자 포함 50여명). 안전하고 은혜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C국 장O 선교사

1. 광야목장에서 몽골어로 정기적인 온라인 예배가 들려지게 하소서
2. 병음성경이 다음세대와 소수민족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어 읽히게 하소서
3. 기독상담, 코칭통합본의 출간 및 유통, 민간자격증 신청 및 단체설립에 은혜로 인도하소서



일본 이종하 / 정혜경 선교사

1. 매주 방문하며 교제하는 교회들이 힘을 얻고 부흥되도록
2. 7월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북해도와 시코쿠지역을 돌며 4주간동안 가족과 교회방문 선교 여행을 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3.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큐티묵상지 「생명의 삶」을 나누며 “생명의 삶 목회 공동체”를 작년부터 시작하여 목회와 선교,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참석하여 힘을 얻게 되도록



한국 김에스터 선교사

1. 8월 7-9일까지 미스바 탈북민수련회를 진행합니다.
2.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 속에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3. 어두운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4. 수련회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5. 참석자 모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언어의 성장
2. 이사한 새로운 곳에서 관계 형성이 되어지도록
3. 비자 갱신할 때에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4.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만들어 지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E국 김OO / 양OO 선교사

1. 수단학교가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산모와 아이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3.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남편에게 힘과 능력 성령충만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4. 1:1 제자훈련 시작한 D자매를 위해, 말씀으로 성장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무 A형제 가정 건강을 위해, 담석이 작아져서 작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름이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여러가지 잔병들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I국 이OO / 이OO 선교사

1. 샤프트디너에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2. 가정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 날수 있도록, 샤프트디너 멤버가 자연스럽게 가정교회로 흡수될 수 있도록
3. 이OO 선교사 테라피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4. 9월부터 시작되는 중단기 사역팀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5. 이웃으로부터 센터 소음에 대해 컴플레인을 지속적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6. 저희 부부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서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이 확보되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더욱 풍성해 지기를.
7. 8월에 병원 치료로 (심장병, 디스크) 한국방문을 위해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Cuba Freedom 3기 및 신학교 졸업식 (8/17-8/22)
S/L: 송중호 목사
문의: 민건호 집사 (714-471-0776)
- 중미 4개국 연합 AFA 1기 (8/31-9/6)
S/L: 송중호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몽골인카운터#1 및 교회 개척선교 (8/31-9/9)
S/L: 변재령 목사
디렉터: 이영국 집사
문의: 이한철 집사 (858-335-9415)
- 타지키스탄(두산베) TD (9/1-9/6)
S/L: 최윤섭 선교사/김영환 목사
문의: 213-500-5344

- 키르기스스탄(비쉬켄) TD 22기 (9/12-9/23)
S/L: 설성훈 목사
렉터: 송헌근 장로
문의: 라병원 장로 (714-713-0948)
- 콜롬비아 목회자 AFA 5기 (10/4-10/11)
S/L: 한기홍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인도개척선교(인도 신학생들과 함께) (10/24-11/1)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O/T: 9/2(화) 6:30pm, 웨딩채플
- 태국 TD2기 (10/31-11/8)
S/L: 송중호 목사
렉터: 정명섭 집사
문의: 안규범 집사 (714-328-4820)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